보성군, 교육의 힘으로 보성의 미래를 연다!

상위권 대학 및 우수학과 진학률 4년 연속 상승

초등학생 100명 지원 '새싹 키움 장학금' 신설

보성군은 지역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군은 올해 총 22억 3천여만 원의 교육경비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보성교육지원청에 지원하며, 미래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 및 우수학과 진학률이 2020년 7.6%에서 2025년 30.2%로 상승했으며, 보성군의 교육 혁신 효과를 전국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전방위적 교육투자, '보편적 교육복지 + 맞춤형 인재 육성'

군은 올해 △교육복지 실현(9개 사업, 11억 9천만 원), △특기 적성 지원(3개 사업, 2억 4천만 원), △학력 증진 지원(5개 사업, 7억 5천만 원) 등을 통해 전 세대 학생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무상급식,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물론, 통학 여건이 어려운 초·중학생을 위한 택시비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강화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및 주말 토요 프로그램을 통한 적성 계발과 학력 신장 지원으로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 작은 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유학' 확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성군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확보해 겸백면, 문덕면에 4동씩 조립식 주택 8동을 신축하고 폐교 위기 학교에 학생을 유치해 젊은층 인구 유입에 성공했다.

올해 역시 농산어촌 유학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유학 경비 지원 등을 강화해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우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지역 내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보성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청소년 진로 체험 활동 확대, △영어 체험 교실과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6개 고등학교에는 각 학교 특성을 반영한 '인재 육성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계고 3개교에는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 든든한 성장 울타리, 장학사업 대폭 강화

(재)보성군장학재단은 올해 상·하반기에 총 730여 명에게 5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5회 수기 공모전' 개최 및 장학회보 발간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와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새싹키움 장학금'을 신설해, 조기 인재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다진다.

이번 보성군의 대규모 교육 지원은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역 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보성에서 당당하게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학교,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행복한 보성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함평군, 첨단 로봇 장비 보급… 스마트 농업 '선도'

무선 자율주행 로봇 도입… 농작업 효율 극대화

전남 함평군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평군은 "고령화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최근 첨단 로봇 방제기 및 로봇 운반차 총 15대를 농가에 보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선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장비를 도입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 시간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농업기술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장비를 보급받은 한 농업인은 "로봇 방제기를 사용하니 농약에 노출되는 위험이 줄고 방제 시간도 크게 줄었다"며 "고령의 농업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을 도입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진근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로봇 장비 보급을 계기로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겠다"며 "향후 보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은 보완하고, 기술 확산과 농업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앞으로도 농업인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맞춤형 농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함평/전광춘 기자

담양에서 일하고, 담양을 누리세요!

담양군 주요 관광지, 관내 학교·관공서 임직원 대상 무료 개방

전남 담양군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담양군은 관내에서 근무하거나 학업 중인 주민들을 위해 담양의 대표 관광지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무료입장이 가능한 관광지는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소쇄원, 한국대나무박물관, 가마골생태공원으로 담양의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이다.

특히,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2024년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및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되며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죽녹원은 8가지 주제의 대숲길을 따라 죽림욕과 족욕 체험, 한옥 숙박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담양의 대표 관광지이며, 메타세쿼이아랜드는 2.1km의 가로수길을 따라 어린이과학체험관, 개구리생태전시관, 어린이프로방스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가마골생태공원은 용면 용추산을 중심으로 영산강의 발원지인 용소폭포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장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 명소다.

무료입장 대상은 담양군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관내 관공서에 근무 중인 임직원(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교육연수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등)이다.

입장 시에는 신분증 또는 소속 증명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학교와 관공서 직원들이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며, 담양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숨 쉬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광양시,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용TV 무상 보급 지원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광양시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2025년도 저소득층 시·청각 TV 무상 보급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TV는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등의 기능을 탑재한 일체형 고화질 스마트TV로,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청취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다. 단,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각·청각장애인용 전용 TV를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신분증(또는 장애인등록증) 혹은 국가유공자증(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장애 정도, 연령 등 우선보급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제조·보급업체가 선정된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치 일자를 조율한 후 방문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688-459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난숙 광양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TV 보급사업을 통해 시각·청각장애인분들께 보다 나은 방송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 개원으로 돌봄 기반 시설 확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어르신들 돌봄으로써 복지도 향상

진도군은 17일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해 준공된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설진석 시설장,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관계자 등 약 100명의 내빈이 참석했고, 행사는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기반 시설 확대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890.25㎡ 규모로 신축됐으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번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 개원으로 우리 군의 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께서 요양원을 잘 이용하고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무안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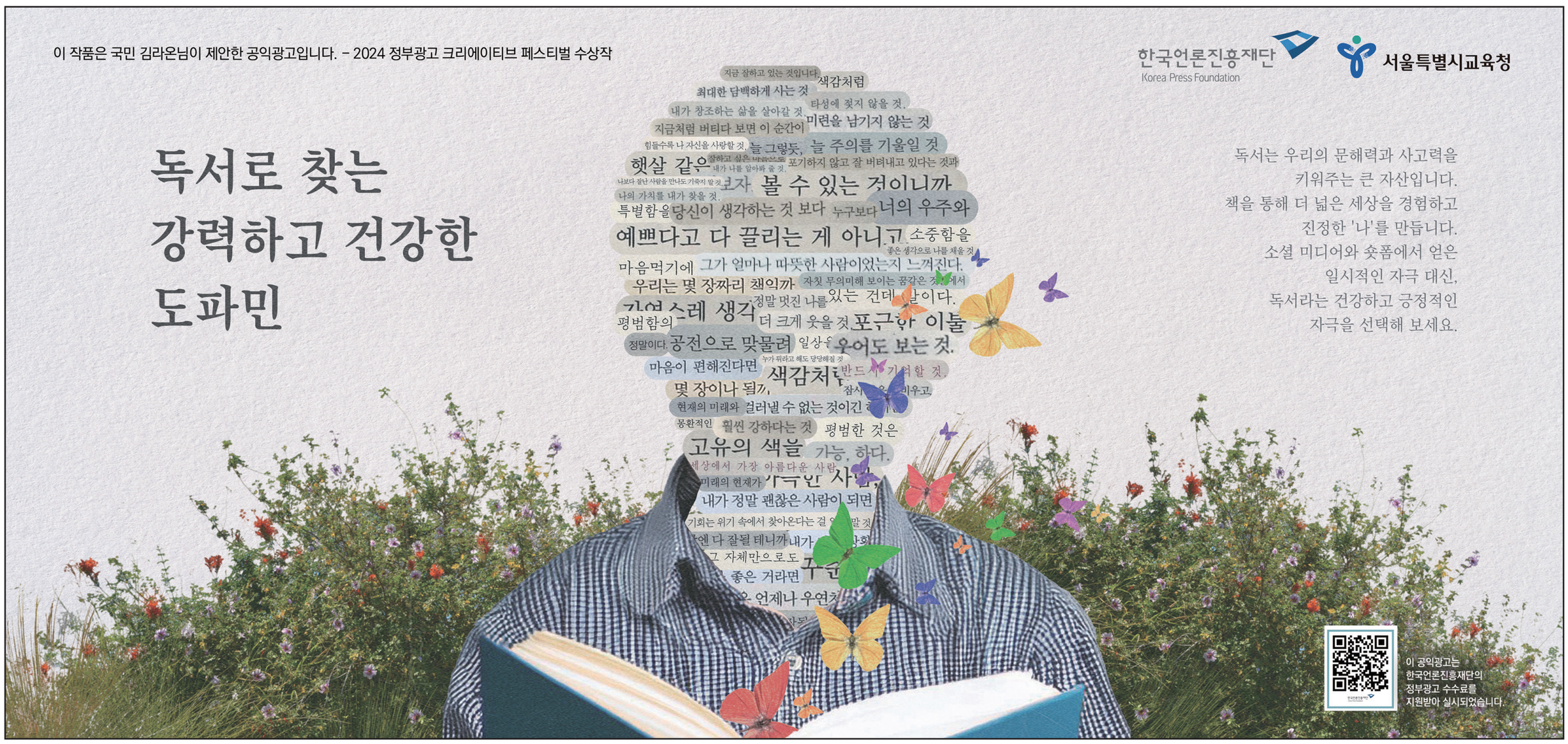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으로 총 6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기간별로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로 나눠 운영되며, 이수 및 취·창업, 근속 등 목표 달성 시 최대 350만 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되며,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이용하거나 전남일자리종합센터(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를 방문하면 된다.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그동안 사회와 단절돼 있던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청년이 진로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